항공 서비스와 연계한 한방의료관광에 관한 고찰

Study on Chinese Medicine Tourism Linked Aerial Service

김순석*, 오평석**

Soon-Seok Kim*, Pyeong-Seok Oh**

요 약

그동안 의료 관광과 관련하여 많은 문헌들과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한방적인 측면에서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는 현재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한방의료관광이란 한방적 처방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건강과 관련된 관광 행동과 접목되어 새로이 생겨난 개념으로 헬스 투어리즘의 한 분야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그 중에서도 특히 한방의료와 관광 그리고 항공 서비스 수요와 연계 관점에서 향후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Abstract

Until now,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and raised issues on medicine tourism. However, the studies for invigoration of medicine tourism from chinese medicine perspective have not been sufficient. The chinese medicine tourism is a new generated concept that combined health medical service of chinese treatment with health-related tour activity as a kind of health tourism. In this paper, we try to search developmental suggestions and propose alternatives for vitalization of chinese medicine tourism from aerial service view.

Key words : Aerial service, Chinese medicine, Medicine tourism, IT convergence

Ⅰ. 서 론

한방의료관광이란 한방적 처방의 보건의료 서비스가 건강과 관련된 관광 행동과 접목되어 새로이 생겨난 용어로서 헬스 투어리즘의 한 분야이며 건강 및 치료 증진을 목적으로 한방 의약 자원을 이용하여 관광의 프로그램, 서비스, 시설 등에서 제공하는 보건관광을 의미한다. 또다른 의미로는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민간요법과 대체요법을 포함하여 한방에서 사용되는 약초를 사용하거나 한방적 진료 및 치료와 시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의 형태를 말하며, 체험방식으로는 체질감정, 침 시술, 요가치료, 항기치료 및 추나 요법 등의 건강요법과 약초 사용 및 여러 방법의 한방 검진을 통하여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는 자연 요법 체험에 접근하는 것을 말한다. 한마디로 말해 한방 의술에 근거한 환자의 치료는 물론 예방차원에서의 건강관리 및 치료를 위한 휴요양산업과 관광프로그램이 융복합화된 산업을 의미한다.

그 유형으로는 크게 아래 표 1과 같이 유형과 무형으로 나뉠 수 있다 [1].

이러한 한방의료관광은 최근 동의보감이 중국의 황제 내경을 물리치고 유네스코 세계 문화 유산으로 선정됨으로써 중국과 다른 독자적인 한방의 체계성

* 한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 한라대학교 레저관광경영학과 부교수
· 제1저자 (First Author) : 김순석
· 투고일자 : 2011년 9월 19일
· 심사(수정)일자 : 2011년 9월 19일 (수정일자 : 2011년 10월 24일)
· 게재일자 : 2011년 10월 30일

과 우수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한방의료와 휴양 및 요양관련 관광산업이 결합된 형태로 한방 자원과 의료의 컨텐츠를 상품화 함으로써 한방관련 수요의 창출 및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할 수 있다.

표 1. 한방의료 서비스의 유형
Table 1. Classification of Chinese medicine service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유형	상품자원	한방차, 한방 음료수, 한방전통음식, 한방피부연고 등
		한약재, 첩약, 침구 등
	천연자원	약초, 허브 등
	관람,시설자원	한의학 박물관, 약령시, 축제 및 박람회, 약초 재배원, 한방 테마파크 등
무형	의료서비스자원	한방기술(맥진, 침술, 사상체질분류 등)

본 논문에서는 한방의료관광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들을 살펴보고 항공 서비스 수요와 연계한 방안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동안 의료 관광과 관련하여 많은 문헌들과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한방적인 측면에서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는 현재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의료 그중에서도 특히 한방의료와 관광 그리고 IT 기술의 융합과 특히 항공 서비스적인 관점에서 향후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는 매우 크다 할수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방의료관광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들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IT 융합 및 항공 서비스 관점에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고 4장을 끝으로 결론을 맺고자 한다.

Ⅱ. 한방의료관광 동향

한국 한의학 연구원의 2007년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보완대체의학 시장 성장 흐름 및 규모가 지난 2002년 1,000억불, 2006년 1,550억불, 2008년에는 2,000억불로 추정되면서 그 규모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들은 [5]를 참조하기 바란다.

현재 정부는 이에 의료 관광이 포함된 글로벌 헬스케어를 17대 성장동력산업으로 선정한 바 있으며 2010년 의료 관광객 10만명 유치와 아시아 최고의 의료 관광 허브로 부상시킨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한편 한방의료계는 이에 한방에 관한 인프라를 지역별로 구축하여 관련 문화사업이나 축제 등 관광시설을 연계하여 “한방 웰니스 관광” 인프라를 마련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국내의 경우, 현재 제천, 산청, 장흥, 대구가 한방도시로 특화되었고 한방관련 산업이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제천은 현재 역초웰빙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코레일과 “러브투어” 및 지역 약초시장 상인회와 관광상품을 운영하며 “한방명의촌”을 2010년까지 9부문, 32개 과제 사업에 총 4,579억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장흥은 “생약 특성화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며 또한 아토피치유센터를 조성하여 세분화된 진료과목 유치로 마케팅을 특성화 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모발 이식과 마이크로 임플란트 수술 부문에 가격 경쟁력을 가지며 진료과목을 특성화 함과 아울러 종합검진, 문화역사관광, 전통음식, 사찰체험 등 “대구메디컬투어”를 운영하고 있다. 그 외 최근 운영 중이거나 시행 중인 한방의료관광 동향은 표 2와 같다.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5]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행되어온 획일적인 한방도시 특성화는 오히려 지역간 과다 경쟁을 부추길 우려가 있는 바, 지역별 특색에 맞는 지역특유의 한방관광 산업을 육성하여 한방 치료 이외에 다양한 체험 행사들을 연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Ⅲ. IT융합 및 항공 서비스 관점에서의 한방의료관광

지난 200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표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6]에 따르면 그 세부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한방의료관광객 유치 채널 구축, 둘째, 해외홍보 및 상품 개발, 셋째, 외국인 친화적 환경 조성,

넷째, 수요자 중심의 사후 관리, 다섯째, 행정지원 체계 및 제도 개선, 여섯째, 양한방 협진 체계 및 세계적 진료센터 구축, 일곱째, 한방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여덟째, 지자체 의료 관광 통합적 조정 및 경쟁력 강화이다.

여기서 우리는 IT 융합이라는 관점에서 IT분야에 서비스 제공 측면과 그 시너지를 거둘 수 있는 분야로, 네 번째인 수요자 중심의 사후관리와 일곱 번째인 한방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부문에 좀 더 관심을 갖고자 한다.

수요자 중심의 사후 관리는 현재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신인도 제고와 환자와 국내의료기관 보호,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 특히, 중국산 불량 한약재 문제 즉, 한약에 대한 의료 소비자 불신 상존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외국인 환자의 의료분쟁 대비 시스템 구축과 추진체계의 안정화, 그리고 의료 관광 사후관리 체계와 연동하여 한방의료관광 관련 소비자불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현재 한약재의 부실 관리, 중금속 오염 및 유해성 지적, 한약재가 비규격품 상태로 시중에 유통된데 따른 것으로 의약품의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한편 두 번째로 한방 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부문은 첫 번째 수요자 중심의 사후관리와 일맥상통한 것으로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아울러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한방 산업 진흥에 대한 국가 차원의 계획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즉, 한약재의 안전 관리 강화 및 유통의 투명성 제고, 특히 한약관리 인프라 강화를 통한 한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를 주요 이슈로 하고 있다.

이들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한의사협회 등이 상호 협력하여 우선 한의학의 표준화와 감염관리 기준 마련이 하루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우수 한약재

표 2. 한방 의료 관광 주요 동향
Table 2. Chinese medicine tourism trend

구분	지역		내용
한방휴양관광단지[2]	경남 산청		- 지리산과 동의보감의 고장 산청은 당대 최고의 명의인 류의태, 허준 선생과 조선후기에 중국에까지 명성을 떨쳤던 초삼, 초객 형제 등 명의들을 많이 배출한 전통 한방의 본 고장임. - 지리산 자락에서 자생하는 약초는 그 효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우수성이 널리 알려져 있음. - 이러한 전통을 계승하여 산청군에서 금서면 특리 일원에 산청 한의학 박물관을 갖고 한방 약초축제를 열고 전통한방휴양관광지를 조성하는 등 산청을 한방약초, 한의학의 성지를 만들고 있음.
대장금 한방 의료체험[3]	서울 남산골 소재 한옥마을		-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3월 18일 협회 회관에서 한방 의료관광협회와 '한방 의료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양측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하여 한방 의료 관광협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서울특별시·한국관광공사·대한한 의사협회가 후원하는 '대장금 한방 의료체험'에 한방 의료상담 및 진료를 담당할 한의사 인력 및 장비 제공 등을 추진하게됨. - 외국인 대상 한방 의료 홍보 및 한방 의료기관 연계를 위한 '대장금 한방 의료체험'은 4월부터 7월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남산골 한옥마을 옥인동 윤씨 가옥에서 진행하고, 한방건강검진과 상담은 물론 침·약침·전침·부항 등 치료와 많은 관심을 받고있는 미용침·지방분해침도 시술한 바 있음.
외국인환자치유 세미나[4]	대전대학교 대전 한방병원		- 대전대 동서생명과학연구원은 "우리나라는 외국보다 낮은 의료수가와 높은 의료기술력으로 외국인 환자가 급증해 의료관광의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한의학 연구소가 위피한 대덕연구단지의 높은 의료관련 기술력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금산 인삼, 천연의 유성온천수 등과 연계한 의료 관광프로젝트를 중점 개발한다면 대전은 국내 최고의 한방 의료관광에 있어 최적지라고 강조함.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효능 중심의 한역 품질 기준 개발과 아울러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학연이 연계하여 고부가 가치의 한방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광역 클러스터 조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선행 작업 이후에 한약재의 투명한 관리와 규격화를 위해 IT 기술을 기반으로 표준화된 규격과 감염관리 기준에 따라 각종 한약재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이를 관리하는 한약재 유통 관리 및 감염관리를 위한 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IT 기술을 접목하여 한약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와 수요를 제고시키기 위해 한약재의 생산, 제조, 가공, 유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한약관리 시스템 도입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한방의료관광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보호와 관련한 가장 큰 이슈는 외국인 환자의 의료 사고 및 의료분쟁에 관한 예방 및 분쟁 조정 부문이다. 이는 한국 의료에 대한 해외 신인도를 제고하고 환자와 국내 의료기관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이슈라 할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환자의 의료 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대처 방안에 대한 매뉴얼 개발과 교육, 그리고 의료 분쟁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사무국 등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법적인 측면에서 외국인 환자 의료 분쟁 조정법과 같은 법안이 입법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기본적인 대처 방안은 환자 진료이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의사가 설명한 사항 등을 명문으로 작성하여 동의서를 받아 두는 것이 분쟁 발생시에 대비한 최소한의 방비책이 될 것이다.

한편 지난 2008년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관광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구체적인 상품 판매를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제주 한라병원과 대한항공간 의료관광 추진 협약에 관한 조인식이 있었으며, 지난해에는 아시아나 항공과 한양대 병원이 손을 잡고 국외거주 외국인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협력병원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개발한 바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 항공은 서울대병원 강남센터, 청심국제병원 등과도 전략적 제휴를 맺은 바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우수한 의료 실력과 저렴한 치료비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태국 등 타 아시아 국가에 비해 외국인에 대한 의료관광 마케팅이 활성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양한 항공 노선과 병원 및 항공사와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 효율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의료산업이 국가적으로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지정한 바 있어 향후 2~3년 이내에 병원 및 항공사 상호간 협력을 통해 고부가가치의 의료관광 및 항공 서비스 산업이 크게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Ⅳ. 결 론

우리는 지금까지 한방의료관광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과 이슈, 그리고 IT 융합 및 항공 서비스와의 연계 관점에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사후 관리 및 한방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한약재의 안전성과 유효성 논란, 한약에 대한 의료 소비자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여러 정책적 대안 이외에도 IT 분야에서 한약재의 투명한 생산, 제조, 가공, 유통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한약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약재에 대한 표준화와 감염관리기준 마련과 아울러 이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방의료관광에 있어 외국인 환자의 의료 사고 및 의료 분쟁 예방을 위해 정책적, 법적 대안 이외에도 최소한의 방비책으로 환자 진료 이전 환자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과 의사가 설명한 사항을 명문으로 작성하여 동의서를 받아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함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의료 관광과 관련하여 많은 문헌들과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한방적인 측면에서 의료 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는 현재 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 그중에서도 특히 한방의료와 관광 그리고 IT 기술의 융합과 항공 서비스와의 연계적인 관점에서 향후 발전적인 방향과 대안을 새로운 각도에서 모색한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의의는 매우 크

다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1] 홍창식, “한방헬스투어방안 연구”, *보건산업진흥원*, 2002.
[2] *산청한의학박물관*, http://museum.sancheong.ne.kr/
[3] 남산골 전통한옥마을, http://hanokmaeul.seoul.go.kr/
[4]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 http://www.djudj.or.kr/main/main.php
[5] 이충기, 유지윤, 임은순, “우리나라 한방의료관광에 대한 수요예측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관광학 연구*, 제33권 제6호, 2009.
[6] 이충기, 유지윤, 임은순, “지역산업연관모델을 이용한 경북한방의료관광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호텔경영학연구*, 제 19권 제 1호, 2010.
[7] 윤석용, 한방특화도시와 연계한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전략, *2009 한방의료관광 심포지엄*, 2009.
[8] 경상북도, “한방의료관광 육성계획 : 한방웰니스 관광을 중심으로”, *경상북도*, 2009.
[9] 유지윤, “한방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한국한의학연구원*, 2009.

김 순 석 (金淳錫)

1997년 2월 :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컴퓨터공학과(공학사)
1999년 2월 :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2003년 2월 : 중앙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2003년 3월~현재 : 한라대학교 공과대학 컴퓨터공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 의료관광, 의료정보보안, 유헬스보안

오 평 석 (吳坪錫)

1984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사)
1989년 8월 : 조지아주립대학교 보험학과 (보험학석사)
1995년 5월 : 일리노이대학(어바나 샴페인) 재무학과(경영학박사)
1999년 9월~현재 : 한라대학교 레저관광경영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 레저관광, 연금보험, 기업재무